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㉓ 남양 혜충(南陽慧忠) 국사

▶ 한줄 요약
혜충 국사는 숙종과 대종의 두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았으며, 동산법문 계통 남종선서 최초로 無情佛性을 제창하고 중국 선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산법문 계통 남종선 최초 '無情佛性' 제창

당대(唐代)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의 양경(兩京)에는 서역 등지와 동아시아 제국에서 온 외국인이 십만 명이 넘게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각지에서도 인재들이 몰려들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사(安史)의 난(755~763)은 한순간에 중국을 쇠퇴하게 하였다. 송대(宋代)에 찬술된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천하의 호구(戶口)가 10에 8, 9가 없어지고, 주현(州縣)들이 대부분 번진(藩鎭)에 점거당하여 공부(貢賦)가 들어오지 않으니, 조정(朝廷)의 부고(府庫)가 고갈되었으며, 중국에 연고가 많은 까닭에 오랑캐들이 매년 변경(邊境)을 침범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여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그 지역 인구의 70%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재난에 황권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였으니, 당시 황제인 숙종(肅宗)으로부터 국사(國師)로 초빙된 선사가 바로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이다. 혜충 국사는 숙종과 대종(代宗)의 두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았으며, 선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혜충 국사의 생애와 그 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혜충의 전기는 〈경덕전등록〉, 〈조당집(祖堂集)〉, 〈송고승전〉,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지월록(指月錄)〉 등에 상세히 실려 있다. 〈조당집〉에 따르면, 육조 혜능(慧能)의 제자로 속성은 염(冉)이며, 월주(越州)의 제기현(諸暨縣: 현 浙江省 諸暨縣) 출신이다. 어려서 16세에 이르도록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상대하지 않다가 어떤 선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가 예배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선사에게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지만, 그 선사는 조계산(曹溪山)에 주석하는 혜능 선사를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바로 조계산으로 가서 혜능을 만나 출가를 원하자 혜능은 혜충에게 "너는 성스럽고 밝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육십 년 동안 천자(天子)가 될 것이니, 천자가 되어 불법(佛法)을 위하는 군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지만, 혜충은 "육십 년뿐만 아니라 백 년의 천자라도 원치 않으니, 오직 스승께서 자비로 저의 출가를 허용하십시오."라고 하자 "네가 출가하면, 천하에 홀로 선 부처가 되리라."라고 하며 출가를 허용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후대에 많은 선전(禪典)에서 황제의 지위도 마다하고 출가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혜충은 혜능의 문하에서 깨달음을 인가(印可)받고, 남양(南陽) 백애산(白崖山)의 당자곡(黨子谷: 현 河南省 淅川縣 倉房鎭)에 들어가 40년간 주석하며 교화하였다고 한다. 이후 "상원(上元) 2년 정월 16일에 숙종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長安)의 천복사(千福寺) 서선원(西禪院)에 안치(安置)되었고, 후에 광택사(光宅寺)로 돌아갔다. 숙종과 대종의 앞뒤 양조(兩朝)에서 친히 보살계를 받고, 국사(國師)의 예를 내렸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상원 2년(761)은 '안사의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현종(玄宗)은 파촉의 성도(成都)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민심을 잃어 강제로 태상황(太上皇)으로 물러났고, 장안에서 피난하지 않았던 그의 셋째 아들인 이형(李亨)이 황제에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숙종이다. 숙종은 즉위(756)하면서 하택(荷澤) 신회(神會)를 청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도승(度僧)하게 하였고, 향수전(香水錢)의 세금을 받

혜능 문하서 인가 · 당자곡 40년 주석
禪典서 "황제의 지위도 마다하고 출가"
숙종 · 대종 양조서 보살계 · 국사 초빙
난세에서 사상적 통합을 이룬 선구자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 조전에 있는 육조 혜능 선사 진신상.

았다. 여기에는 불법의 도움으로 난을 평정하려는 것과 군비를 조달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숙종의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어느 정도 전란이 평정되자 숙종은 신회 선사를 궁으로 청하여 설법을 들었으며, 전란으로 소실된 낙양의 하택사를 재건하여 선사를 주석시키려 하였지만, 신회는 건원(乾元) 원년(758)에 형주(荊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입적하였다. 그에 따라 숙종은 상원 2년(761)에 같은 혜능의 제자 가운데 혜충을 국사로 청하였고, 보살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혜충을 청하여 국사로 모신 것은 전란으로 인하여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의도였다고 하겠다.

이후 숙종이 병사하고, 대종이 즉위(763)하면서 다시 16년을 광택사에 머물렀다고 하니, 최소한 18년 정도를 장안에서 머물며 설법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도인 장안에서 머물면서 교화하였고, 혜충은 대종에게 상소하여 무당산(武當山)에 태일연창사(太一延昌寺), 백애산 당자곡에 향엄장수사(香嚴長壽寺)를 건립하게 하였고, 승려들을 출가시키면서 각각 대장경 1본(本)을 하사하여 호지(護持)하게 하였다. 또한 대력(大歷) 8년(773)에 다시 천하의 명산에 경(經)·율(律)·선(禪)에 정통한 37인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는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교화와 불교의 부흥에 힘쓰다가 대력 10년(775)에 갑자기 악질(惡疾)이 발생하여 12월 9일에 입적하였다. 대종은 대증 선사(大證禪師)라고 시호(諡號)를 내렸으며, 조서를 내려 40여 년 동안 수행했던 백애산 당자곡의 향엄장수사로 유골을 돌려보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혜충의 제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는 탐원 응진(耽源應眞)이다.

혜충의 선사상은 〈경덕전등록〉 권28에 실린 〈남양혜충국사어(南陽慧忠國師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혜충은 동산법문 계통의 남종선(南宗禪)에서 최초로 무정불성(無情佛性)을 제창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승려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심(佛心)인가?"라고 하자 국사는 "장벽(牆壁)과 기와, 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승려가 "경전과 서로 크게 어긋난다. 〈열반경〉에서 '담장의 무정물을 떠나므로 불성(佛性)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불심이라 하니, 마음과 성(性)이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는가?"라고 묻자, 국사는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 승려가 "경전에 이르길, '불성은 항상하지만, 마음은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국사는 "너는 다만 말에 의지하고, 뜻에 의지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추운 날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따뜻한 시기가 되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중생이 미혹할 때 '성'을 얽어매 마음을 이루고, 중생이 깨달았을 때 마음을 풀어 '성'을 이룬다. 만약 무정에 불성이 없음[無情無佛性]에 집착한다면, 경전에서 마땅히 삼계유심(三界唯心)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네가 경전에 어긋난 것이지, 내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는 상당히 유명하며, 후대에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무정불성'의 제창에는 복잡한 문제가 함유되어 있다.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조 시기로부터 몇 백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지닌 유정(有情) 중생에게만 불성이 있다는 '유정불성'과 기와나 돌과 같은 무정에도 불성이 존재한다는 '무정불성'이 커다란 갈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동산법문의 도신이나 홍인, 그리고 혜충의 스승인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도 '무정불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으며, 치열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혜충은 〈육조단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당시의 선풍(禪風)을 비판하여, "저 〈단경〉을 개환(改換)하여 누추한 말을 섞어서 성인의 뜻을 깎아버리고 문도들을 어지럽히니, 어찌 언교(言教)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 괴롭다! 우리 종지가 상실되었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다. 그런데 혜충은 어찌 스승의 〈단경〉에서 철저히 비판하는 '무정불성'을 제창하는가?

여기에는 안사의 난 이후 혜충의 사상적 통합에 대한 배려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사의 난 이후는 당조(唐朝)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혜충은 혜능의 남종선을 통하여 중국 전통사상, 즉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의 융합을 도모했다고 하겠다. 중국에서 발생한 유가는 '천(天)'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 '천인합일(天人合一)'을 논하고, 그리고 도가는 '자연(自然)'으로부터 연역된 '도(道)'를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여 '여도합일(與道合一)'을 논한다. 여기에서 '천'이나 '도'는 모두 '무정'에 속하는 존재들이며, 〈단경〉에서 제창하는 '자심(自心)'과 '자성(自性)'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경〉에서는 '돈오(頓悟)'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심'에서 '돈오'를 이룬다면 충분히 외부의 무정물, 나아가 '천'이나 '도'까지도 '불이(不二)' 혹은 '여일(如一)'의 상태에 들기 때문에 '무정불성'을 용인할 여지가 존재한다. 즉, 혜충의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심오한 문제이지만, 혜충 국사가 '무정불성'을 제창함에는 당시 사상적 통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안사의 난 이후에 천태종에서도 '무정불성'을 승인하고 있으며, 화엄종에서는 '삼교합일'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유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불융합'을 제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상적 통합을 제창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상적 통합에 선구자의 역할을 한 이는 바로 당시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아 '국사'의 지위에 있었던 혜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혜충 국사의 사상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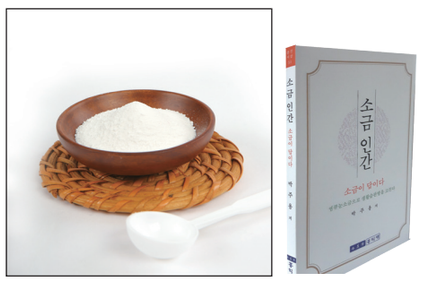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KSQ ISO 9001:2015 한국표준산업적용

동양의학표준과학원 / 동양전문자격사회교육원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 모집

한국표준산업적용 동양의학 침구사 · 접골사 - 안마사 - 추출물가공사에 대한 전문연수교육 및 자격검정관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22년12월12일(월)오후2시 사전신청 접수자에 한해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모집과정 : 국제공인자격과정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취득자격증 사본, 사진 4매(반명함)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일자리창출 (보건의료산업 반영)

특전 직업능력개발 표준교육훈련 위탁사업에 따라 교육부 인정 학교 연계 진학, 전공 관련 국제공인자격 획득,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 사업가능.

문의 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409호
☎(02)747-6877 / FAX (02)745-6877 / H.P 010-3319-6877